



가톨릭마산

대림 제1주일

2023년 12월 3일

제2594호



대림초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이사 63,16ㄹ-17,19ㄸㄹ; 64,2ㄴ-7
-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 독 서 1코린 1,3-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 복 음 마르 13,33-37
- 영 성 체 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1요한 4,16)

2023년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겨웠던 시기를 뛰어넘고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저희 곁에 계시며 깨달음을 주십니다. 금년에도 이끄심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희 교구에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새 교구청에 무난히 입주했으며 교우님들 많이 방문하시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새해에도 교구 공동체가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밝은 기운의 2024년을 기대합니다.

2023년에도 일들은 많았습니다. 사무처와 사목국 그리고 복지국, 청소년국, 관리국에선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교구 내 공소방문 행사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와 성지를 순례하며 체험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감동은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편안하게 맞아주신 공소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선포는 신앙인의 소명입니다. 단순하고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소박하면 자연스레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생각이 마음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쁨과 단순함은 언제라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성당가기를 머뭇거리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냉담교우 숫자도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요? 공동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해법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집 저집에서 빵을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사도 2,46)

초대교회는 일치와 나눔을 먼저 생각했으며 단순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생활마저 함께하려는 순수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즐겁고 소박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인 각자는 깊은 믿음과 감사의 신앙으로 이러한 시도에 응해야 합니다. 재교육을 통한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야 할 곳이며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말씀도 읽는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기초기도인 아침저녁 기도와 묵주기도를 늘 바치면 가정성화에 큰 선물이 됩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말엔 가끔씩 가족이 함께 순례하며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주위에 여러 형태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다양한 봉헌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 교구엔 이주민 노동자와 그들의 가정도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관심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현존을 몸으로 느끼려면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성경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영적 기쁨도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성경필사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도에는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밝은 쪽으로 나아가려면 도움의 은총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와 성사생활 그리고 성경쓰기는 그 은총의 에너지에 가까이 가는 행동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6)

실천 사항

1. 기초기도인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매일 바칩시다.
2. 매주 1회 평일미사에 참례하며 영성체를 합시다.
3. 매주 1회 가족이 모여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칩시다.
4. 매월 첫 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하고 가족이 함께 주일미사에 참여합니다.
5. 성지순례와 공소방문을 자주 합시다.
6.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기도하며 활동합니다.
7. 청소년시설과 복지시설에 도움을 줍시다.

2024년을 준비하는 대림 첫 주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치명자산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시와 함께
따나는 성지순례

그날도 비가 내렸으리
그분 따라가는 길, 비가 내린다
십자가의 길에 쏟아져
온몸 축축이 적시는 뜨거운 사랑
망나니의 칼날에 세상을 찢는 외마디소리
천둥 번개 따라 빛이 되고
풍남문 넘어 곡창지대 곳곳에 울려 퍼지니
흘어지는 가족의 뜨거운 눈물 꼭꼭 누르고
두려움 없이 떠나는 발걸음에
갯세마니 동산의 예수님
순교자 지켜주시는 성모님의 모습
바위산에서 호남의 사도 증거하는구나
무덤에서 다시 만난 가족들
그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숨 쉬고
살아있는 이 땅의 부끄러운 사랑
아직도 멀고 아득한 산봉우리
그대 품에서 자라나리
한국의 몽마르뜨여

치명자산에는 신유박해(1801)때 순교한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그의 가족 6명이 합장되어 있다. 이 중에는 다블뤼 주교가 “한국 순교자들의 보석”이라고 칭송한 동정부부 순교자 이순이와 유중철도 포함되어 있다. 유항검 가족은 처음에 초남이 근처 바우배기에 매장되었다가 1914년 전주성당(현 전동성당)의 보두네 신부가 유해를 모셔와 현재 자리에 모셨다.

보두네 신부가 해발 300여 미터의 산정에 순교자들을 모신 뜻은 순교자들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을 높이 기리고, 순교자들이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기원함이었다. 이후 1993년 유항검의 유해 확인을 위한 시굴 작업을 진행하여 유항검과 그 가족 6명 모두의 유해를 확인한 후 재안장했다. 2019년 거제에 유배된 딸 동정녀 유섬이의 묘가 발견되면서 묘토석을 합토했다.

순교자 묘 밑에는 1994년 건립된 기념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직자 묘지와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순교자 묘는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느님을 향한 이야기요, 그분을 향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 곧 신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해입니다.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은 하느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에 관해 올바르게 알아가려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신학은 단순히 성경과 교회 전통과 가르침, 전례와 역사에 대한 연구에 머무는 학문적 활동만이 다가 아닙니다. 신학은 하느님과 일치된 내 삶에서 우리나라 전인적 고백 행위를 통해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신앙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먼저 성찰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나의 이성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 시대에는 증명 가능하며 확실한 것만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자체로 ‘신비(Mysterium)’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이성으로 어떤 뭐가로 받아들이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지不可知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신비를 남김없이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신학대전 1,12,7)’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고, 알 수 없으며 감추어져 있는 그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신비는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아 가는 진리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초대(계시현장 2항 참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라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 인간이 맞갖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信仰)’입니다. 마치 부모의 부름에 자녀가 응답하듯이 ‘계시(啓示)’와 ‘신앙’은 그렇게 서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가톨릭교회교리서, 150항)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기적이나 환시와 같은 강렬한 사적 계시를 체험해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생생하게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느님에 대해 묻고, 하느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하느님을 찾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거나, 잘못된 ‘나’와 하느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 병, 상처, 어둠, 좌절 같은 것조차도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하고자 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산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여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신앙을 위해 교회의 가르침이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알아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에 대해 묻고 찾으며 알아가는 자세,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베드로 3,15) 두는 자세이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에페 2,8)이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안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다시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 변종원 신부님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가톨릭문인회 영성지 출판기념 감사미사
일시: 12월 9일(토) 10:3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교구/본당

성지 및 사적지 위원회

일시: 12월 5일(화) 11:00/ 장소: 교구청

휴학 신학생 피정

일시: 12월 5일(화)~6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겨울방학

일시: 12월 9일(토)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2월 10일(주일) 10:30/ 장소: 의령성당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봉사자 월례회

일시: 12월 4일(월) 14:00/ 장소: 상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담당자 010·5116·2288

전례와 꽃예술학교 졸업 및 수료작품 전시회

일시: 12월 8일(금) 오프닝 11:00~10일(주일)까지
장소: 교구청 1층
문의: 전례와 꽃예술학교 010·9088·4864

교구 가톨릭문인회 영성지 출판기념 감사미사 및 제1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일시: 12월 9일(토) 10:30/ 장소: 교구청

기 타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화복 50일 여정

▶본과정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일정: 12월 12일(화)~24년 1월 30일(화)/ 8주 과정
시간: 매주 (화) 14:00, 22:00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접수: 문자로 접수 010·8911·5957
회비: 5만 원(교재비 별도)/ 교재 주문 가능
봉헌식: 주님 봉헌축일 2024년 2월 2일(금)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2월 16일(토)~17일(주일)
2024년 1월 20일(토)~21일(주일)
3박 4일- 12월 7일(목)~10일(주일)
2024년 1월 11일(목)~14일(주일)
8박 9일- 12월 26일(화)~2024년 1월 3일(수)

2024년 1월 29일(월)~2월 6일(화)
40일- 2024년 4월 11일(목)~5월 20일(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 피정

일시: 12월 23일(토)~25일(월)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
문의: 010·9353·1773 김토마스 수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송년피정

일시: 12월 30일(토)~31일(주일) 1박 2일
장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817·3101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일시: 12월 29일~24년 1월 1일(연말연시)/ 24년 1월 20일~22일(눈꽃산행)/ 24년 1월 26일~28일/ 24년 2월 2일~4일/ 24년 2월 17일~19일/ 24년 2월 25일~27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눈꽃산행: 24년 1월 6일~8일/ 24년 1월 12일~14일/ 24년 1월 19일~21일/ 24년 1월 27일~29일/ 24년 2월 3일~5일/ 24년 2월 14일~16일/ 24년 2월 23일~25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2024년 일정은 아래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773·1455, 064·796·4182

2024년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일시: 2024년 1월 5일(금)~7일(주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방법: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회비: 15만 원/ 문의: 043·260·5076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11월 13일(월)~2024년 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주일) 16:00~2024년 1월 1일(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접수: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 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및 문의: 055·221·1891

중동본당 제3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석규(야고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재원(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권영화(마리아 막달레나)
총무분과위원장: 배준용(다니엘)
기획관리분과위원장: 이만호(아브라함)
시설분과위원장: 박시호(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최송자(베네딕타)
소공동체분과위원장: 천경순(요셉파나)
선교분과위원장: 고귀임(제노베파)
성경분과위원장: 진정순(안토니아)
복지분과위원장: 정경희(데레사)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옥희(가브리엘라)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임순임(엘리사벳)
시메온학교위원장: 이마옥(루치아)

진동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이근(율리아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경모(라이문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권영순(율리아나)
총무: 정광호(요셉)
재정분과위원장: 김현수(요한 보스코)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성룡(베드로)
전례분과위원장: 김종미(골롬바)
구역분과위원장: 박원숙(엘리사벳)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최현순(안나)
시설분과위원장: 김정덕(가브리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송철식(베드로)
홍보분과위원장: 황정환(베드로)

용잠본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경구(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장재진(오닐론)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옥희(사비나)
총무분과위원장: 이정무(도나도)
재경분과위원장: 조태철(바오로)
전례분과위원장: 강정옥(율리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이민숙(아녜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옥치원(요한 보스코)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상욱(아나니오)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이오연(라우렌시오)/ 박재상(마태오)
지역분과위원장: 정영옥(가브리엘라)
교육분과위원장: 이금희(제노베파)
청소년분과위원장: 조광섭(베드로)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12월 4일(월) 19:00	중앙동성당	미사 성제 봉헌 준비	황병석 파스칼 신부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문의 바람	010·6608·3217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 2024년 2월 15일(목)~18일(주일) 부산·마산교구 4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2024년 3월 13일(수)~17일(주일) 베트남 대당 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24년 4/6, 9/21 579만원(+1,9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그서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대성의원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희성동) 김종운(클레멘스)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토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박윤식 에밀리오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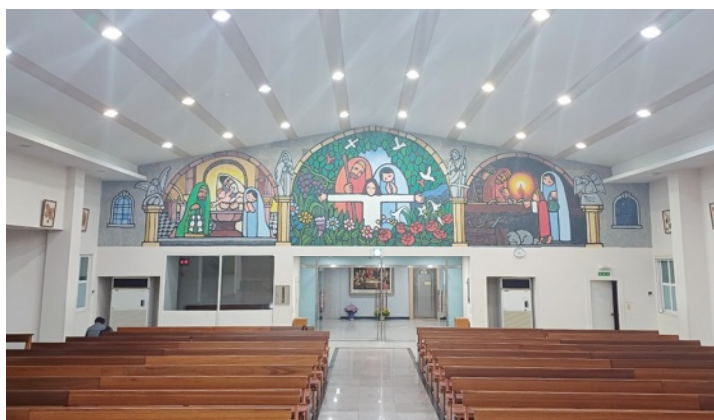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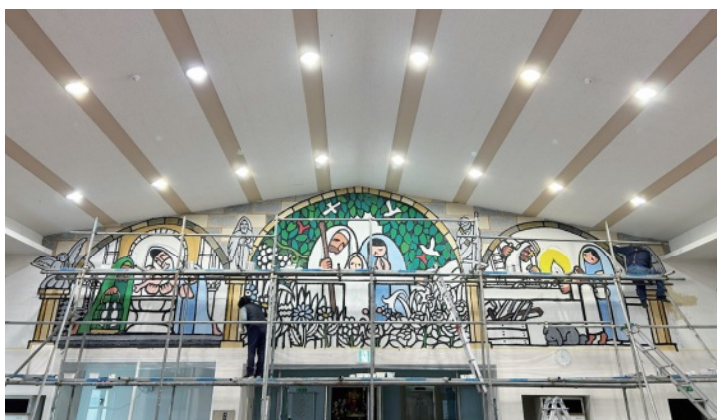
프로 바둑 기사들이 혼자 바둑 두는 것을 종종 본다.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왜 혼자 두는지 의아해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와 둔 바둑을 '복기'하는 거다. 보통 바둑 한 판에 둔 돌이 약 400개라니, 그들은 돌의 자리를 다 기억한다. 그것도 상대와 둔 순서까지도. 이렇게 그들은 복기를 그리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다. “대국 때 둔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 있는 점이기에 가능합니다. 단지 그 첫 자리들만 안다면 나머진 절로 나옵니다.” 프로들은 이 복기를 밑거름으로 삼아, 차후 시합에서 자신의 것으로 이용한다.

중년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성공 신화를 일군 어느 기업체 회장이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중요 순서대로 일을 정해,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을 한 것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이는 쉬운 것 같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정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물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취하려는 치밀한 사전 계획입니다. 저는 이를 지난 수년 동안 현장에서, ‘시작이 반임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왜 바둑 기사가 복기할까? 그건 바로 자신의 실력을 익혀 다음 판을 잘 짜기 위한 사전 준비일 것이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치밀했다. 먼저 남자를 모르는 수줍은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고자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 설득했다. 그녀와 약혼한 요셉을 면담으로 다독이기는 거북해, 꿈에서 양해를 구했다. 또 길잡이 요한을 앞서 보내고자 사제 즈카르야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유다 산골 엘리사벳에게 보내, 뱃속 두 아이의 만남을 사전에 성사해 메시아 탄생 예고를 리허설하여 최종 확인까지 했다. 그렇게 그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상 순례의 여정을 계획하실 때 참으로 치밀했다.

이처럼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도 시작이 참 중요하다. 물론 그 시작이 잘 되면 끝마저 좋아진다. 그렇다. 시작과 그 끝은 의당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다들 복기하는 거다. 이렇게 삶이 있기에 죽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신앙은 이 끝을 마련하는 준비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마무리를 잘 준비시키시고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상 순례를 시작하셨다. 그분의 외침은 회개였고 용서였지만, 여전히 용서 대신 응징, 회개 대신 ‘남 탓’인 모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인 ‘최후의 심판’ 때, ‘작은 이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편 가르시겠다. 따라서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다. 새 출발선이 드러나는 복기의 시간이다.

삼계성당 성가정 벽화 작업



삼계본당(주임: 최태식 필립보 신부)의 성전 뒤편 벽에 성가정 벽화를 새롭게 그려 넣었다. 본당의 주보가 성가정이지만 아무런 조형물이나 성화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대건성당에서 벽화작업을 했던 우재근 가스팔 형제와 정복희 루시아 자매를 초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성전 뒤편 벽에 성가정과 환희의 신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그리기로 결정하였다. 최고 높이 4미터, 길이 12미터로 적지 않은 공간이지만 3주간에 걸친 작업으로 완성이 되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벽화가 성전에 등장하니 다들 놀라면서도 ‘본당이 대성전이 된 것 같다’며 다들 반기고 좋아하고 있다. 삼계본당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의 성화와 지역 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도 아직 미결수입니다.

진동길 마리오 신부(교구 교정사목 담당)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붙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 한 알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 저게 갑자기, 저절로, 혼자서 익어가지는 않았을 거야. 시인의 말처럼 대추 한 알이 붉게 물들기까지 견뎌내어야 했고, 버텨야 했던 무서리 내리는 밤들과 땡볕이 있었겠지. 대추 알 한 알처럼. 나도, 나 혼자 저절로 익어가는 것은 아니겠지. 나를 붉게 만들고 둥글게 만드는 주인이 있을 터이고 또 이웃들이 있는 거야.



미결수와 기결수

찬미예수님! 교정사목 담당 진동길 신부입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미결수들에게 먼저 눈이 갑니다. 미결수들의 얼굴과 표정, 행동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만큼이나 기결수들과 달라 보입니다.

성가를 연습하며 미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기결수들과 함께 미결수들을 기다리다가 혼자 궁금해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감정들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미결수. 어느 날 갑자기 낯설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던져진 상황에서 웬지 어설프고 어색한 모습이 역력한 미결수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감정들일까?

곧 미결수들이 대강당에 등장합니다. 흔들리는 눈길로 불편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끝없이 뿌리를 뺏어내리는 두려움, 분노, 유령 같은 걱정과 불안, 좌절과 절망. 어쩌다 간간이 양념처럼 뿌려지는 희망과 소원, 기대 그리고 기도.

수용시설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기결수들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들을 내 안에서 찾아내 읽고 있으면 나도 미결수와 다르지 않은 처지라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아직 미결수입니다. 아직은 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입니다. 감추고 싶은 죄도 많고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사연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죄인이라는 낙인은 찍히고 싶지 않은 나도 아직 미결수입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Hodie mihi Cras tibi)’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과 함께 지나온 삶을 정리해야 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포도밭 주인이 오시겠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참조 마태 21,33;25장 이하).

내가 잊고 싶어 했던 과거도 다 밝혀지겠지요. 그러나 다만 ‘형이 확정되는 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행복했고 축복된 날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형제처럼 내 곁에서 내 멍에를 기꺼이 매어주셨지요. 그날에도 제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참조 1요한 2,1).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저도 그분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들 곁에 있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측은한 마음과 가없이 여기는 그분의 마음으로...

교구보 연재 글을 마치며

한 해가 지나도록 교정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정사목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정성으로 가장 낮은 이들과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교구 교정사목후원회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교정사목후원회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